

상담자의 예술인 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전 주 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

김 은 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예술인(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하는 자)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5사례 이상의 예술인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합의적 질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가 지각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예술인 내담자의 내적 특성’, ‘예술인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취약성’ 등 5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또한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긍정적 경험’,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 등 3개의 영역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하게 될 상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예술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예술인 내담자, 심리상담, 상담자 경험,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전주원(2021)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상담자의 예술인 상담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Tel: 031-219-2787, E-mail: eunkim@ajo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방송 산업, 영화 산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히, K-Pop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수출, 고용 유발 및 외국 관광객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현섭 등, 2019). 더불어, 한국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 추이는 2003년 62.4%에 비해 2019년에는 81.8%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향률도 2008년 6.5%에서 2019년 19.2%로 3배 이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처럼 문화예술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 예술인들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술인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술인이 비예술인에 비해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관련 문헌에서 예술인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을 받는 동안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 분야 중 적어도 한 분야를 업으로 삼고, 기획·제작·전시·판매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한 내담자를 ‘예술인 내담자’로 정의하였다.

예술인의 심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Berg 등(2022)의 연구에서 음악인들이 일반대중에 비해 높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이는 직업적, 경제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Van den Eynde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 댄서, 가수들은 높은 불안 수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 일부 예술인들에게는 창의력이나 열정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장애’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심리적 부적응의 지표라는 점은 이미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van Rens, & Heritage, 2021). 이 외에도, 여러 연구를 통해 예술인은 비예술인에 비해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 수면 문제, 자해,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병리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gelaers et al., 2022).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는데, 가령, 국내 예술인들이 비예술인에 비해 우울을 약 3.5배 더 높게 보고하였고, 자살 사고의 경우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현섭 등, 2019).

이처럼 예술인들이 심리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로 먼저, 예술인들의 정서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심리내적 취약성)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조

주성, 홍혜영, 장은진, 2020), 이러한 정서 조절 어려움은 높은 감수성, 창작에 대한 고통스러움 및 불안정한 직업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Cahalan, & O'Sullivan, 2013). 둘째, 예술인들은 창의성으로 대변되는 독특한 인지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확산적 사고와 총괄적인(over-inclusive) 개념화를 하는데,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의 방식과 유사하여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Nelson, & Rawlings, 2010). 셋째, 예술인들은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예술인들의 사회적 규범이나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으로 공감받지 못하는 독특성과 개성, 불규칙하거나 유연한 근무시간, 혼자하는 작업이 많음 등이 확인되었다. 넷째, 예술인들은 고용불안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예술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수영, 허식, 2016).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예술인의 소득 수준이 다른 직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슬기, 금현섭, 2017). 또한, 예술인 직업 자체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Pasikowska-Schnass, 2019). 이를 반영하듯,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3.4%의 예술인이 본업을 통한 수입이 '불규칙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예술인의 규칙적인 부업(또는 아르바이트)으로 얻는 연 소득이 약 1,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심리사회경제적 어려움도 더욱 심화되었다(장우현, 이지연, 2021; Betzler et al., 2021). 대부분의 문화예술 운영이 관람객들의 오프라인 방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는 문화예술계의 천문학적인 수익 손실을 초래하였고, 이는 예술인들의 수입 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다(안영희, 나진주, 2020). 가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2020)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취소 혹은 연기된 예술행사는 2,500여 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523억 원에 이르렀고, 예술인들의 88.7%는 전년에 비해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코로나 19 종식 후의 수입에 대해서도 84.1%의 예술인들이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들의 직업적·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예술인들이 지닌 특성과 이들의 불안정한 직업 관련 환경,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술인을 위한 경제 및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적 지원 또한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가 예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영역은 경제적 영역의 피해, 예술활동 피해 다음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가 3순위(15.6%)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 양상은 '예술활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불안' 72.8%, '경제적 피해확대로 인한 좌절감' 69.4%, 가족 및 사회적 책임확대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 66.7%, 감염에 대한 공포 58.2% 순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해 예술인들의 심리상담 신청이 2021

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12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박종언, 2021에서 재인용). 하지만, 아직까지 예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은 국내 30여 개 센터 정도로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관련 교육이나 수련을 받지 않아 예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술인을 상담하고 있어,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예술인 내담자들의 상담 경험을 살펴보면, 해외 연구의 경우, 대부분 상담의 공통요인(common factors)인 상담자의 공감, 지지, 희망, 통찰 등이 예술인 상담에서도 중요한 치료적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Berg et al., 2018). 특히 예술인들에 효과적인 상담 기법도 제시되었는데, 가령, 예술인들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압박감, 불안정한 수입이나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거의 받지 못해 불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명상이나 마음챙김, 노출훈련, 이완기법, 행동활성화, 심상기법, 긍정적인 자기대화 등의 상담 기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연예술가들이 무대 불안이나 수행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명상, 마음챙김, 및 심상기법이 이러한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공연을 무사히 마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자기대화 기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Hamilton, & Robson, 2006; Wilson, 2002).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예술인 상담에 대한 연구는 2~3편 정도에 불과하다. 관련 연구로, 먼저, 조현섭(2019)이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상담자들이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더 있으면 좋겠다’와 ‘상

담자에게 예술인의 실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상담사에게 예술가의 실정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인들에 대한 이해가 더 있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은 문제해결중심을 통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들에 대한 접근이 되면 좋겠다’ ‘개인상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슷한 연구로, 조주성 등(2020)도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의 심리상담을 받은 이유, 상담에 대한 기대, 긍정적 경험 및 아쉬운 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술인 내담자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부재, 우울, 불안, 강박, 정서조절 어려움과 자살사고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 및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담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호소문제는 비예술인 내담자들의 호소문제와 비슷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예술에 대한 성취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인 내담자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 구조 등으로 인하여 유료상담에 대한 부담을 느껴 무료상담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비예술인 내담자들도 무료상담에 대한 욕구가 강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술인 내담자들의 수입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상담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상담자의 지지와 공감,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 비합리적인 생각에 대한 이해, 생각이

정리됨 등이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참여자들은 상담에 대한 한계와 아쉬움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는데, 예를 들어, ‘말로만’ 하는 상담, 즉 언어적 상담에서 한계를 느끼고, 예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상담(예. 연극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의 틀 안에서 반영되어 말해주는 부분들이 아쉬웠다’와 같이 예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상담자의 반응으로 인해 이해받지 못했다는 경험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어떤 내적 및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상담에서 어떤 긍정적 및 부정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상담자가 예술인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내적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상담자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예술인 내담자의 관점과 경험만을 탐색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인 내담자가 지각하는 자신들의 심리적 특성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상담자가 효과적인 예술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예술인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담 과정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상담자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자가 예술인 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인들에게 맞춤형 심리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예술인의 상담 경험에 대한 연구(조현섭 등, 2019; 조주성 등, 2020)만 존재한다. 상담자 관점에서의 예술인

상담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가 지각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다. 국내의 경우 예술인 상담으로 특화된 전문 기관이 부족해서 비예술인을 주로 상담하는 상담자들도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예술인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예술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참여자

아직까지 예술인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상담 관련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전문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학회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소지자, 혹은 5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 등 특정 내담자에 대한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주영, 이아라, 2015, 이주영 등, 2020)에서 최소 1~5회 이상의 상담 경험을 가진 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참고하여, 5회 이상의 예술인 상담 경험이 있는 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예술인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해당하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삼고 경제활동을 한 자로 정의하였고,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에 이 정의를 기재함으로써, 참여자로 하여금 참여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목적론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 명시된 예술인 상담센터의 홈페이지와 상담심리사 1급 전문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은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8명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34세에서 47세로 평균 39.3세였으며, 상담경력은 총 7년 1개월에서 19년으로 평균 9년 9개월이

었다. 학력은 박사 1명(12.5%), 박사수료 2명(25%), 석사 5명(62.4%)이었고, 소지하고 있는 주요 자격증은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 3명(37.5%),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명(25%), 임상심리전문가 3명(37.5%)이었다. 또한 근무기관은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사설상담센터 4명(50%), 연계되지 않은 사설 상담센터 2명(12.5%), 예술학교 학생상담소 1명(12.5%), 보건소 및 범죄피해자 기관 1명(12.5%)이었고, 이 중 예술인복지재단 연계 센터와 비연계 센터 두 곳에서 모두 근무하는 근무자가 1명(12.5%)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번호	연령	학력	상담 관련 자격	상담경력	예술인 상담 사례 수	근무기관
1	47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19년	10+	사설상담센터*
2	34	박사 수료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7년 7개월	8	사설상담센터*
3	39	석사	상담심리사1급	8년 6개월	10+	예술학교 학생상담소
4	34	박사 수료	상담심리사1급	9년 6개월	10+	사설상담센터
5	35	석사	상담심리사1급	7년 1개월	5	사설상담센터 대학상담소
6	42	석사	상담심리사2급	8년	7	보건소 범죄피해상담
7	42	석사	임상심리전문가	8년 3개월	10+	사설상담센터*
8	41	석사	임상심리전문가	10년	10+	사설상담센터* 사설상담센터

주. *표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계 센터

를 수집하였다.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대면, 화상, 혹은 전화 면접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8명의 참여자 중 4명은 대면 면접, 2명은 화상 면접, 2명은 전화 면접을 선택하였다. 면접은 약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되고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완성된 축어록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고, 검토 결과 수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은 사전질문지와 심층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사전질문지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예. 최혜윤, 2015)에서 사용한 사전질문지를 참고하고 예술인 상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반영하여 심층 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한 후, 연구팀 논의 및 합의, 예비 면접 결과, 전문상담자의 자문을 통해 완성하였다. 심층 면접을 위한 질문

은 표 2와 같으며, 면접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7번째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후 참여자의 진술 내용이 대부분 중복됨이 관찰되었고, 8번째 참여자 면담 이후,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 면담을 중단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방법을 사용하여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CQR은 개인 내적 경험이나 태도, 자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나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평정자의 합의과정과 감수과정을 거침으로써 질적 연구의 ‘주관성’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소수의 자료를 가지고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맥락과 내용

표 2. 심층 면접 질문지

시작 질문	1.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 예술인 상담 중 기억에 남은 상담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3. 비예술인 상담과 예술인 상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특성	4. 상담 과정에 있어서 예술인 내담자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5. 상담 과정에 있어서 예술인 내담자만의 취약성은 무엇인가요? 6. 예술인의 분야에 따라 어떤 다른 특성을 보이나요?
예술인 상담에 대한 경험	7. 예술인 상담 시작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8. 예술인 상담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9. 예술인 상담을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0.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상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1.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회기 중에 상담자가 중점을 두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2. 예술인 상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연수 경험이 있으신가요? 13. 예술인 상담자에게 어떤 교육/연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승희, 오혜영, 2013, Hill, & Knox, 2021).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CQR을 채택하였다. 또한 박숙희(2010)가 화가, 작가, 음악가, 배우 등 예술인에게 나타나는 비예술인과 구분되는 특성을 보고하는 등 예술인들이 예술 분야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예술인을 상담한 상담자들 간에 공유하는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CQR이 최선의 분석 방법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정자 3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평정자 1은 상담경력 10년 이상의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 학생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평정자 2와 3은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수료생으로 상담경력 1년 6개월의 상담자였다. 평정자들은 자료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CQR 방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예. 양미진 등, 2012; 이주영, 이아라, 2015; 이희운, 2017; 임은미 등, 2020)을 검토하고 CQR 자료 분석 절차에 대해 재숙지하였다. 또한 사전에 예술인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나 선입견(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음 등)을 검토하여 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논의하였다(예. 예술활동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주의). 또한 평정자 간 불균형이 없이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상담경력이 적은 평정자가 우선 생각했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경력이 많은 평정자와 경력이 적은 평정자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먼저 글로 각자의 의견을 기술한 후

나누는 방식을 통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수자는 상담심리 전공 박사로서 현직 심리학과 교수이며 상담경력 15년 이상이었다. 또한 상담자 소진, 효과적인 상담자 요인, 비대면 상담 등에 대한 CQR 연구를 다수 진행한 바 있다. 감수자는 면접 질문지 작성부터 분석 과정에 대해 감수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감수과정은 약 2개월의 분석기간동안 대면으로 2회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영역코딩 및 핵심 개념 코딩

먼저, 평정자들은 기존 CQR연구에서 진행된 방식을 참고하여(이희운, 2017, 정미라, 2018, 임은미 등, 2020) 개별적으로 2개의 면담 축어록을 읽고 분석한 후,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영역을 분류하고, 영역분류표를 작성하였다. 이후, 영역표를 기준으로 평정자들이 각자 나머지 6개 축어록에 대해 영역분류를 실시한 후, 연구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영역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결과, 연구 문제 1에 대해서는 5개의 영역이 도출되었고, 연구 문제 2에 대해서는 3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핵심 개념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핵심 내용을 더 짧고 명료하게 요약하는 과정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이를 위해 연구팀 평정자들은 우선 2개의 사례 축어록을 개별적으로 읽고 핵심 개념을 구성한 후 연구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핵심 개념을 작성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를 읽고, 앞서 합의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불명확한 내용은 삭제하고 추가할 내용은 더하였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큼’의 경우 논의를 통해 실패의 내용이 예술적 성취에 대한 것에 가깝다는

데 3인의 평정자가 모두 동의하여 ‘예술적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큼’으로 수정하는 등 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문제 1에 대해 33개, 연구 문제 2에 대해 19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후 검수자의 검수와 평정자 간의 재논의 과정을 거치며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개념을 통합(예: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가짐’과 ‘예술 활동을 해 봄’을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통합)한 결과, 연구 문제 1에 대해 23개의 범주, 연구 문제 2에 대해 14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교차분석

다음으로, 사례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범주별 사례의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Hill(2016)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일반적(general)’, 과반수 정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전형적(typical)’, 과반수 이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변동적(variant)’으로 구분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8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일반적(general)’, 5~6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전형적(typical)’, 2~4사례에서 나타나는 범주는 ‘변동적(variant)’으로 분류하였다. 한 개의 사례에서만 나타난 범주는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감수과정

교차분석에 대한 첫 번째 감수 결과, 감수자는 영역 제시 순서 수정, 불명확한 영역 수정 및 통합(예: ‘예술인 내담자의 가치’와 ‘예술인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예술인 내담자의 내적 특성’으로 통합), 중복된 핵심 개념 통합(예: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과 ‘대인

관계가 협소함’을 하나로 묶음), 핵심 개념의 내용 수정(예: ‘심각도가 높은 경우가 많음’을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도가 높음’으로 수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에서는 논의 및 과정을 통해 결과에 반영하거나 기각하였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두 번째 감수과정에서는 영역명 수정(예: ‘예술인 상담에서 필요한 점’을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으로 수정) 외에 다른 수정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 피드백은 연구팀의 합의를 통해 결과에 반영되었다.

결 과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연구 문제 1)과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연구 문제 2)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은 5개 영역과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상담자의 경험은 3개 영역과 14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연구 문제 1: 상담자가 지각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은 ‘예술인의 환경적 특성’, ‘예술인의 내적 특성’, ‘예술인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취약성’이라는 5개의 영역과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상담자가 지각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

영역	범주	빈도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불안정함	일반적(8)
	예술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임	전형적(6)
	직업 특성상 생활 패턴이 불규칙함	변동적(4)
	물리적 및 정서적으로 교류가 적음	변동적(2)
	작품에 대한 평가에 빈번하게 노출됨	변동적(2)
예술인 내담자의 내적 특성	예민성과 민감성이 높음	전형적(5)
	예술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음	전형적(5)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보임	변동적(4)
	예술 작품을 인정받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함	변동적(3)
	현실적 문제보다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	변동적(3)
예술인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	예술적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큼	전형적(6)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함	변동적(3)
	예술 활동 수행에 대한 불안이 높음	변동적(2)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	통찰을 잘함	일반적(8)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함	일반적(7)
	감정을 잘 표현함	변동적(3)
	예술 활동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가짐	변동적(2)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취약성	시간 약속을 자주 어김	변동적(3)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도가 높음	변동적(3)
	약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음	변동적(2)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함	변동적(2)
	소속이 없어 장기적인 상담이 어려움	변동적(2)
	만성적인 우울감을 가진 주변 예술인의 영향을 받음	변동적(2)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

첫 번째 영역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예술인 내담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총 5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경제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성’은 일반적 범주로, 예술인 내담자들은 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은 경우가 많아 예술 활동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유료 상담을 거의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둘째, ‘예술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임’은 전형적 범주로, 참여자들은 예술 집단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면이 있어서 서

열 관계가 뚜렷하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직업 특성상 생활패턴이 불규칙함’은 변동적 범주로, 일부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생활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물리적 및 정서적으로 교류가 적음’도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서 물리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범주인 ‘작품에 대한 평가에 빈번하게 노출됨’ 역시 변동적 범주로 분류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평가에 민감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평가에 대한 불안이 더 심화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각각의 범주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불안정함’ 예시]
호소문제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것, 불안정한 예술 활동에 대한 부분이 공통적인 게 좀 있기는 해요. 예술을 통해서 경제적인 거가 안정화가 안 되니까 (사례 1)

[‘예술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임’ 예시] 약간 오픈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계 선배가, 약간 도제제도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나를 추행한 선배가 뭔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슨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폐쇄집단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데, 예술계 쪽이 조금 더 훨씬 좁은 구조죠. 좁은 것 같아요 (사례 1)

예술인 내담자의 내적 특성

두 번째 영역은 상담자가 생각하는 예술인 내담자의 내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총 5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예민성과 민감성이 높음’은 전형적 범주로, 참여자들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예민하고 민감해서 자신의 내적 경험을 쉽게 알아차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였다. 반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담자의 반응에 비예술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라포를 형성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예술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음’도 전형적 범주로, 예술인들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강한 성취 욕구는 예술작업에 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으로 인해 좌절감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셋째,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보임’이라는 범주는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들이 간혹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의 관심과 인정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강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넷째, ‘예술 작품을 인정받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함’은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은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기 작품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

로, ‘현실적 문제보다 예술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도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보다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는 내용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자부심이 예술인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예민성과 민감성이 높음’ 예시] 근데 그게 더 누군가보다 더 민감하게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들? 그게 있어서 또 아 예술을 업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만큼 민감성과 예민성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도 더 이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느끼고 이래서 그런지(사례 5)

[‘예술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높음’ 예시] 자신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측면에 정말 고민이 많고. 기준이 확실히 높고. 그런 게, 일반적인 분들이랑은 그런 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6)

예술인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

세 번째 영역은 상담자가 생각하는 예술인 내담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총 3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예술적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큼’은 전형적 범주로, 참여자들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큰 만큼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크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예술인들이 다른 예술인들과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자주 비교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함’은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우울을 주요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다른 변동적 범주인 ‘예술 활동 수행에 대한 불안이 높음’은 당장 맡은 업무수행에 대한 걱정부터, 장기적으로 자신의 예술 작품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계속 예술을 주업으로 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공연예술인의 경우, 무대에서의 수행 불안을 많이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예술적 성취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큼’ 예시] 작업이 안 풀릴 때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고. 다음 작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슬럼프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다른 내담자들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사례 4)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

네 번째 영역은 상담자의 관점에서 예술인이 상담에서 어떤 강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총 4개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통찰을 잘함’은 일반적 범주로, 예술인들은 예술작업을 하는 데 있어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평소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많이 하며, 이는 긍정적인 상담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함’은 또 다른 일반적 범주로,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이 상담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상담 회기 간에 상담 내용에 대해 재성찰하거나, 상담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

하려고 노력하는 등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감정을 잘 표현함’은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들이 상담 내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예술 활동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가짐’도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 ‘승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예술이 가진 치유력에 대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통찰을 잘함’ 예시] 비예술인분들하고 과정은 같은데 초점이 예술인분들은 신기하게 다 본인 통찰로 끌고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탐색해서 그래서 현재 본인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데 본인들이 몰음표를 갖고 있던 것들 같이 찾아 나가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중략) 12회기라는 시간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지만 비예술인들이 갖게 되는 회기 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통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사례 2)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함’ 예시] 그리고 제가 뭔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되게 열심히 해주세요. (중략)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천을 해 오신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본인만의 방식을 뭔가 이렇게 찾아서, 뭔가를 실제로 경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사례 8)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의 취약성

마지막 영역은 상담에서 예술인 내담자가 보이는 취약성에 대한 내용으로, 총 6개의 변

동적 범주가 포함되었다. 먼저, ‘시간 약속을 자주 어김’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상담 약속을 빈번하게 어긴다는 내용으로, 그로 인해 상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도가 높음’은 자살 사고,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 증상 혹은 성격장애의 특성 등 예술인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심각한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범주이다. 셋째, ‘약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음’은 예술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 다른 예술인들과 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범주이다. 넷째,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함’은 예술인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서적 고통도 더 강하게 경험한다는 범주이다. 일부 참여자들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접촉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소속이 없어 장기적인 상담이 어려움’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장기적인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한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우울감을 가진 주변 예술인의 영향을 받음’은 예술인들은 주위 우울한 예술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예술인들 주변에 우울한 지인이 많아서 왜 우울이 문제가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같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시간 약속을 자주 어김’ 예시] 예술인분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라 5분, 10분 늦는 거는 미안한 기색 없이 그냥 당연

히 오시고 30분 늦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2)

연구 문제 2: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경험’,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이라는 3개의 영역과 1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

첫 번째 영역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4개의 변동적 범주가 확인되었다. 먼저,

‘예술인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이라는 범주에는 예술인이 겪는 현실적 문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워 참여자들이 좌절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낌’의 경우, 예술인 내담자들이 비예술인 내담자들에 비해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상담자도 그만큼 예민하게 살피고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셋째,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접촉이 안 됨’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방어적이면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관점에서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마지막으로, ‘상담 약속에 대한 한계 설정이 어려움’은 예

표 4.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	예술인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변동적(4)
	정신적인 부담감을 느낌	변동적(3)
	내담자와 정서적으로 접촉이 안 됨	변동적(3)
	상담 약속에 대한 한계 설정이 어려움	변동적(3)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경험	예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일반적(7)
	내담자가 다시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낌	전형적(6)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됨	변동적(3)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	내담자의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의 결과로 내담자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음	변동적(2)
	예술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함	일반적(8)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함	전형적(5)
	예술인에 대한 편견을 점검함	변동적(4)
	예술인의 작품을 상담 도구로 활용함	변동적(3)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짐	변동적(2)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조함	변동적(2)

술인 상담에서 참여자들이 상담 시간 약속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구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예술인 내담자들은 주로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시간을 어기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담 약속을 자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인이 겪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예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때. 그러면 같이 무기력한, (중략)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많이 힘들죠(사례 4)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경험

두 번째 영역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지각한 내용을 반영한 영역으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예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은 일반적 범주인데, 이 범주에는 참여자들이 예술인 상담을 통해 상담자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술인의 문화적, 직업적 환경 및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내담자가 다시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낌'은 전형적 범주로, 참여자들은 정서적 고통 때문에 예술작업을 하지 못하던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회복하면서 다시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보람이나 자부심을 느꼈다는 내용을 반영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상담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나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이해를 예술 작품에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더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셋째,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됨'도 변동적 범주로, 참여자들이 예술인 상담을 하

면서 작품이나 예술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예. 클래식 전공을 하는 내담자를 만난 상담자는 클래식을 더 듣게 됨)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의 결과로 내담자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음'도 변동적 범주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술인 내담자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통찰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내담자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예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예시] 되게 몰랐던 분야를 제가 알게 되는 것들? 사실은 예술 분야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미술, 음악 뭐 이런 단순한 카테고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도 되게 여러 분야들이 있고. 뭔가 새롭게 요즘에도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오시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야들을 좀 알게 되는 것들이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사례 8)

['내담자가 다시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낌' 예시] 앨범을 내셨다거나, (중략)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아 이분이 하셨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좀 기쁨? 같이 나눌 수 없지만. 아 그래도 하셨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은 좀 있죠(사례 7)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

마지막 영역은 예술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상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포함한 내용으로,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예술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함'은

일반적 범주로, 예술인을 상담할 때 예술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에 따르면, 상담자는 예술인의 내적 및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예. 분야별로 예술인들이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협업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함’은 전형적 범주로, 예술인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받는 데 익숙하므로 상담자가 수용적이고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예술인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예술인에 대한 편견을 점검함’은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 상담 시, 예술인 대한 상담자 자신의 편견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예술인을 너무 특별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태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경제적 및 정서적 취약성(예. 사회적 지지가 부족함)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면, 예술인 내담자가 가진 자율성이나 강점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예술인의 작품을 상담 도구로 활용함’은 또 다른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의 작품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반영되므로 상담에서 이러한 작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실제로, 참여들에 따르면 예술인 내담자들은 상담에서 자기 작품을 자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내담자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예술에 대해 관심을 가짐’도 변동적 범주로, 예술인 내담자

와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상담자는 평소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예. 전시나 공연을 감상함, 책을 읽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조함’도 변동적 범주로, 일부 예술인 내담자들이 상담 내용을 예술 작품의 일부로 활용하거나 공개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구조화 내용에는 상담 내용, 자료 및 도구를 외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사전에 논의하고, 유출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예술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함’ 예시]
그쪽 업계의 생리를 조금 더 직접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했었어요, 복지재단에서도.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용어들. 이런 것들에서 상담자가 너무 그런 쪽에 지식이 없으면, 계속 뭔가 걸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매번 물어보고(사례 7)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함’ 예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단적으로, 비평가적으로 그냥 만나는 것. 아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이렇게 만나는 거야’라는 것을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평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각으로 평

가를 하거나 그것을 분석하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을 나의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사례 3)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과 상담자가 예술인 상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상담자가 지각하는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에 대해 5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결과에서 도출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술인 내담자들은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불안정하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민성과 민감성이 높으며, 예술적인 성취에 대한 욕구도 높아서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비예술인에 비해 좌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담에 대한 적극성이 높고 통찰 능력이 뛰어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담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환경적 특성으로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불안정하고, 생활패턴이 불규칙하다는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예술인들의 수입이 불안정하고 생활 리듬이 일정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 조주성 등(2020)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와 결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학자마다 직업가치를 다르게 정의하지

만, 일반적으로, 직업가치에는 안정성, 사회성, 작업 환경, 창의성, 성과(보수 포함), 독립성/자율성 등이 포함된다(김태형 등, 2014; O'Connor, & Kinnane, 1961).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가 다르겠지만, 핵심 직업가치 중 하나가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들의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예술인들이 빈번하게 작품에 대해 평가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인들은 수행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술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결과도 확인되었는데, 이 결과를 모든 예술계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예술계에 존재하는 ‘도제식’ 교육이나 과도한 경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배현정, 추예은, 2018) 예술인의 독립성/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예술인에게 독립성/자율성 및 창의성이 중요한 직업가치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강주희, 이지연, 2014), 이러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예술계 구조는 예술인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술인의 내적 특성으로 예민하고 민감함, 특히, 평가에 민감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조현섭, 2019; 조현섭 등, 2019)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들이 예술적 성취 및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인에게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과도하게 강하면,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적 열등감 및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술인들은 예술작품을 인정받는 것

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예술작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자기불일치 이론(Higgins, 1987)에 의하면,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간의 간극이 클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의 내적 특성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비예술인 내담자에 비해 자기애적 성격 특성(예.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함, 외부의 인정과 칭찬을 과도하게 추구함)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수준에서 개인의 자기애적 성격 특성이 강할수록,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Goncalo 등(2010)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연구에서는 예술인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좌절감, 우울감, 불안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예술인 혹은 창의적인 집단이 비고 집단에 비해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를 더 많이 겪는다는 기존의 연구(예. Carson, 2011; Durrenberger, 1999)와 일맥상통한다. 예술인들이 이러한 호소문제에 취약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예술인의 환경적 특성 및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불안정한 경제 및 직업 활동과 빈번한 평가에 대한 노출은 좌절감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와 조현섭 등(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들은 주변 시선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좌절감과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

넷째,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으로 상담 과정에서 통찰을 잘하고 자기 이해에 대한 동기가 높음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Ludwig(1998)

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술인들이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자기비하적 사고를 포함한 부정적인 사고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평가에 민감하고 예민한 예술인의 경우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예술인 내담자의 강점 중 하나로 예술 활동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가짐이 나타났는데, 유사하게, 손성은(2016)도 예술 경험이 치유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예술 치료의 효과성도 보고되고 있어(Reynolds et al., 2000), 예술 활동의 치료적 효과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더욱이,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예술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예술인 내담자와 달리, 예술인 내담자들에게는 예술이 ‘직업’이자 ‘일’이고, 평가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술 작품을 활용하기 전 내담자와 라포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변동적이긴 하였으나 예술인 내담자의 여러 취약성도 확인되어, 상담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내담자는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하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소하는 문제의 심각도가 높은 편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만성적인 우울을 경험하는 주변인이 많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접수면접

에서 보다 주의 깊게 내담자의 위기스크리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에 내담자의 약물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물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여 내담자에게 안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담자의 약물관리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분장애, 조현병, 성격장애와 예술직군 혹은 창의성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박숙희, 2010, Furnham, 2015)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술인의 내적 특성(예. 예민하고 민감함, 예술 활동 수행에 대한 불안이 높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학교나 기업처럼 상담을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비예술인 내담자보다 상담 시간 약속을 잘 어겨서 제한이 있는 상담 회기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예술인들이 규범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는 Feist(1999)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비예술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술인 내담자와의 상담 시 구조화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상담 구조화 시간에 반드시 상담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약속, 상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의 안내, 상담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처 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첫 회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상담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상담자의 소진 예방과 효율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술인의 환경적 및 내적 특성에 대해 한 가지 강조할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상담 장면에서 내

담자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관찰했다는 점이다. 즉 참여자들이 언급한 예술인의 특성을 예술인 비임상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모든 예술인이 자기 애적 특성을 보이고 평가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심리적 문제로 인해 상담받은 예술인들이 이런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예술인이 처한 예술계의 구조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예술인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고 궁극적으로 상담소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 다만, 선행연구를 통해 예술인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조주성 등,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및 내적 특성을 미리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에 대해 3개의 영역이 확인되었다. 결과에서 도출된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을 살펴보면, 예술인 내담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감정이입 하게 되며, 예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인 내담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 기존의 편견은 점점하고 특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자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변동적인 부분이지만 예술인 내담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여러가지 어려움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내담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예술인 내담자와의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나 상담 과정에 대한 구조화의 어려움 역시 상담자로서의 개인적 성취를 감소시키고 이는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담자 소진 요인이 될 수 있다(윤아랑, 정남운, 2011). 따라서 상담자 소진예방을 위한 자기 관리 역시 필요하겠다. 소진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여가시간이 소진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최혜운, 2015)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므로써 예술 활동을 하나의 소진방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내담자의 이해와 상담자의 자기관리 양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역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느끼는 어려움’에서는 참여자들이 예술인 내담자들이 예민하고 민감하여 정서적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예술인의 내적 특성, 즉, 예민성과 민감성이 높음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예술인 내담자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부담감과 무기력감은 소진의 핵심 증상인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윤은주, 2009;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부 참여자들은 예술인 내담자들이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지만,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예술인과 상담할 때 이들만의 독특한 감정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영역은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참여자들은 예술인 상담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령, 참여자들은 예술인 내담자가 상담을 통해 깊이 있는 수준의 자기이해와 자기표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과 효능감을 느꼈고,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상담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성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술인 상담이 내담자와 더불어 상담자에게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들의 경험은 비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상담 경험이 많지 않던 상담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더욱 의미 있게 와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점도 도출되었는데, 먼저, 예술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민감한 예술인 내담자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예술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다문화적 역량(Arredondo, & Arciniega, 2011)의 세 가지 요소인 인식(awarenes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중 하나가 인식이라는 점 그리고 인식이라는 차원에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즉 상담자 대부분이

비예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자는 자신과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예술인 내담자에 대해 자신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판단 및 평가하는 마음’이 상담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진정성 경험을 방해한다(김예실, 이희경, 2020)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인의 작품을 상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놀랍지 않은 결과로, 상담자는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의 작품을 치료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외에도, 일부 예술인들이 상담 내용을 녹음 혹은 녹화한 후 자신의 예술 활동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상담 관련 윤리강령은 상담자가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어 상담자의 권리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담자도 개인정보보호나 비밀보장과 관련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초반에 내담자와 이에 대한 약속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내담자가 어떤 목적으로 상담받으려 온 것인지, 어떤 이유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담의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탐색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좀 더 거시적 맥락에서, 상담자 윤리강령이 내담자와 더불어 상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임상적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상담 관련 문헌에서 예술인의 특성이나 예술인 상담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거의 없어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인 내담자와 예술인 상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및 내적 특성 그리고 상담에서 보이는 강점 및 취약성에 대한 풍부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어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했는지와 더불어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예술인 내담자들이 상담 약속을 어기거나 비밀보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상담 과정(예. 상담 시간, 빈도)과 비밀보장에 대한 내담자 및 상담자의 권리에 대한 사전 구조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인이 심각한 문제를 호소하고 정서적 고통을 강하게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 초반에 위기 개입의 필요성(예. 자살, 자해)에 대해 탐색하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예. 자살 핫라인)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상담자는 초반에 내담자의 위기스크리닝을 보다 면밀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약물치료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인 내담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반응에도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술인과 상담할 때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자기에적 특성을 지닌 예술인 내담자의 경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친밀감과 자존감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자의 수용적이면서 진솔한 태도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자기에적 성격 내담자는 충분한 공감과 지지 경험의 결핍으로 인해 자존감과 관계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도 역전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상담자가 이를 인식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중요함이 확인된 바 있다 (McLean, 2007).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술인의 예술적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는 예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좌절감이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만족감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상담에서 글, 그림, 음악과 같은 예술작업을 활용한다면, 내담자에게 작품에 대해 평가받지 않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작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 발언도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술인 내담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만 동시에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여기에서 내담자가 어떤 방어적 혹은 저항적 행동을 보이는지 관찰하고 내담자와 함께 그 이면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인 내담자는 자기이해나 성찰에 대한 동기가 높기 때문에 겉으로는 방어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지금-여기에서의 탐색에 적극적

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말’로만 하는 상담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감정 탐색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내담자의 어떤 감정과 생각이 내담자의 작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통찰을 잘하고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과제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상담자가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내담자가 경제적인 문제(예. 불안정한 수입)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이러한 문제가 내담자의 호소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상담자들이 예술인 내담자들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술인 내담자의 환경적 특성과 내적 특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술인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주로 보이는 호소문제가 무엇인지 상담에서 어떤 강점과 취약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겠다. 특히, 예술인 내담자들이 예술적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 불안과 좌절감을 느낀다는 점, 만성적인 우울감을 느끼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해 상담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상담자들은 예술인 상담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하였는데, 아직까지 예술인 상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담자에게는 이러한 선배 상담자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상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예. 상담 약속에 대

한 한계 설정이 어려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상담자 교육에서는 상담자들이 예술인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와 예술인의 작품을 어떻게 상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예술분야에 다양한 세부 분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큰 범주를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예술 분야별로 예술인들의 환경적 특성이나 내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세부 분야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상업예술과 순수예술의 차이점이나 공연예술과 창작예술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사업 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이 작품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공연예술인은 무대에서는 것에 대한 불안(예. 수행 불안)에 대해 많이 호소하는 반면에 창작예술인은 관계나 우울 문제를 많이 호소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진행한 예술인 상담은 대부분 무료 상담, 단기 상담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유료 상담이나 장기 상담을 진행한 상담자들을 모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어떤 상이한 혹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술인 내담자의 특성과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한 점 등은 상담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분석과정에 경력 1년 6개월의 초심 상담자가 평정자로 포함되어, 일반적인

상담 사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술인 상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술인 상담에서 상담자의 경험이 일반적인 상담에서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인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인 상담에서 중요한 점(예. 예술인의 작품을 고려하는 것, 예술에 흥미를 갖는 것)이 예술인 상담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격증, 수련 및 상담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특성(예. 자격증, 수련 경험, 예술인 상담 횟수)에 따라 예술인 상담에서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담자의 관점에서 예술인의 특성이나 예술인 상담 경험을 살펴봤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시사점뿐만 아니라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가 모든 예술인 내담자 혹은 예술인 상담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이나 상담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상담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예술인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인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담자의 예술인 내담자 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술인 상담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주희, 이지연 (2014). 예술대학 진로지도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소고. *미술과교육*, 15(3), 99-120.
- 김예실, 이희경 (2020).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진정성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09-638.
- 김태형, 신용준, 김동룡 (2014). 입사전후 직업 가치의 인식차이에 따른 종업원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 연구*, 21(3), 407-434.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년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보고서
- 박숙희 (2010). 창의성은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가. *창의력교육연구*, 11(1), 35-50.
- 박종연 (2021). 코로나 팬데믹 속 예술인 심리상담 127% 증가... 예술인 우울 비율 일반인의 '6배'. *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6198> 에서 검색.
- 배현정, 추예은(2018). 문화예술계 성의 권력, 그 이면의 그림자. 채널 PSN.
<https://channelpnu.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7205> 에서 검색.
- 손성은 (2016). 이중섭 심리부검. *인물미술사학*, 12, 185-329.
- 안영희, 나진주 (2020). 실용음악 예술인의 현황과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코로나(COVID-19) 사태를 겪는 부산지역 실용음악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국대중음악학회*, 25, 137-179.
- 양미진, 이동훈, 고흥일, 김영하, 남현주 (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윤수영, 허식(2016). 문화예술인의 예술근로 만족에 관한 연구: 스로스비의 근로선호모형 적용. *문화정책논총*, 30(2), 66-90.
-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31-256.
- 윤은주 (2009). 상담자 소진(burnout)에 대한 체험분석. *상담학연구*, 10(4), 1855-1871.
- 이슬기, 금현섭 (2017). 예술인의 소득 지위와 격차. *예술경영연구*, 41, 5-36.
- 이주영, 이아라 (2015). 학교폭력 가해자 대상 상담에서의 상담자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49-880.
- 이주영, 이아라, 윤은희 (2020). 성소수자 내담자 대상 상담에서 상담자가 인식하는 어려움과 도움요인. *아시아교육연구* 21(2), 231-266.
- 이희운 (2017). CQR(Con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한 동거자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임은미, 김인규, 강지현, 김지현 (2020). 대학생의 개인상담 성과 및 성과 요인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1(1), 1-22.
- 장우현, 이지연 (2021).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3), 301-313.
- 정미라 (2018).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조주성, 홍예영, 장은진(2020). 예술인의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연기예술연*

- 구, 18, 177-197.
- 조현섭 (2019) 예술인 심리상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연기예술연구*, 15, 141-161.
- 조현섭, 강은주, 조성민, 이유경, 박민선, 신유진 (2019). 예술인 심리상담 연구, *연기예술연구*, 14, 93-114.
-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 분야의 CQR 연구 동향: 2001~2010년 상담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최혜윤 (2015). 소진(Burnout)과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최혜윤 (2015). 대학상담센터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 회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825-84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코로나19 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 (예술인)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20). 「코로나 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사업실명제 사업내역서
- Arredondo, P., & Arciniega, G. M. (2011).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counselor training based on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9(4), 263-273.
- Berg, L., King B., Koenig, J., & McRoberts, R. L. (2018). Popular musician responses to mental health treatment.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 33(2), 124-130.
- Berg, L., King, B., Koenig, J., & McRoberts, R. L. (2022). Musician occupational and finan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burden. *Psychology of Music*, 50(6), 1801 - 1815.
- Betzler, D., Loots, E., Prokupek, M., Marques, L., & Grafenauer, P. (2021). Covid-19 and the arts and cultural sectors: Investigating countries' contextual factors and early policy mea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7(6), 796-814.
- Cahalan, R., & O'Sullivan, K. (2013). Injury in professional Irish dancers.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7(4), 150-158.
- Carson, S. H. (2011). Creativity and psychopathology: a shared vulnerability model.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6(3), 144-153.
- Durrenberger, S. D. (1999). Mad genius controversy. In M. A. Runco & S. R. Pritzker (Eds.) *Encyclopedia of creativity* (2nd ed., Vol 2, pp. 169-177). California: Academic Press.
- Feist, G. J. (1999). 14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s.) *Handbook of creativity* (pp. 27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nham, A. (2015). The bright and dark side correlates of creativity demographic, ability, personality traits and personality disorders associated with divergent thinking.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7(1), 39-46.
- Goncalo, J. A., Flynn, F. J., & Kim, S. H. (2010). Are two narcissists better than one? The link between narcissism, perceived creativity, and creative perform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11), 1484-1495.

- Hamilton, L. H., & Robson, B. (2006). Performing arts consultation: Developing expertise in this domai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7*(3), 254-25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2에 출판)
- Hill, C. E., & Knox, S. (2021). Conceptual foundations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In C. E. Hill & S. Knox *Essentials of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pp.1-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egelaers, J., Jessen, L., Audenaerde, E., & Oudejans, R. R. D. (2022). Performers of the night: Examining the mental health of electronic music artists. *Psychology of Music, 50*(1), 69-85.
- Ludwig, A. M. (1998). Method and Madness in the Arts and Scienc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1*(2), 93-101.
- McLean, J. (2007). Psychotherapy with a narcissistic patients using Kohut's self psychology model. *Psychiatry, 4*(10), 40-47.
- Nelson, B., & Rawlings, D. (2010). Relating schizotypy and personality to the phenomenology of creativity. *Schizophrenia Bulletin, 36*(2), 388-399.
- O'Connor, J. P., & Kinnane, J. F. (1961). A factor analysis of work valu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3), 263-267.
- Pasikowska-Schnass, M. (2019). Employment in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https://policycommons.net/artifacts/1337626/employment-in-the-cultural-and-creative-sectors/1945584/> 에서 검색.
- Reynolds, M. W., Nabors, L., & Quinlan, A. (2000). The effectiveness of art therapy: Does it work? *Art Therapy, 17*(3), 207-213.
- Van den Eynde, J., Fisher, P., & Sonn, C. (2016). *Working in the Australian entertainment industry: Final report*. Entertainment Assist, Melbourne, Australia.
- Van Rens, F. E. C. A., & Heritage, B. (2021). Mental health of circus artists: Psychological resilience, circus factors, and demographics predict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flourishing.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3*(4), 101850.
- Wilson, G. D. (2002). *Psychology for performing artists* (2nd ed.). Philadelphia, PA: Whurr Publishers.

원 고 접 수 일 : 2022. 12.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2. 13
게재결정일 : 2023. 03. 20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on Counselors' Experience of Counseling Artists

Juwon Jeon¹⁾

Eunha Kim²⁾

¹⁾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Master's Degree

²⁾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Professor

This study used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counselors who worked with artis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professional counselors who had worked with at least five artists. Counselors'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artist clients fell into five domain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ers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difficulties, strengths in counseling, and vulnerability in counseling. Counselors' experiences working with artis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omains: difficulties in counseling artists, positive experiences in counseling artists, and important aspects in counseling arti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to counselors working with artists, and further serve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counselor training programs for counseling artists.

Key words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rtist Client, Counseling, Counselors' Experience*